

# 한국불교 정보포교 '거북걸음'

## 인터넷사이트 3개뿐... 일·티벳 절반 수준 '정보화 역량 키우기' 등 해외포교 혁신 필요

### 정부 '정보화전략' 발표 계기 불교정보화 분석

지난 14일 김영삼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통해 21세기 국가 정보화 6대 과제들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불교계가 정보화의 틀을 폭넓게 짜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종단소식

#### 동계U 성공기원법회

태고종 전북총무원원은 지난 13일 무주 한문사에서 '97 동계유니버시티 성공기원 1만 관동 영산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천여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97동계 유니버시티 무주·전주 대회가 원만히 회향토록 기원했으며 국악예술단의 공연과 영산작법 보존회의 영상재가

#### 시원했다.

#### 총화종 원로위원 추대

총화종(총무원장 남경)은 지난 11일 남양주 수진사에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스님 13명의 원로위원 추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대식에서는 총화종 원로위원장에 아음스님(3대 종정) 부원장에 일홍스님 해산스님이 위촉됐다.

내는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저조해 정보매체를 통한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검색엔진 야후(Yahoo)에서 한국불교와 관련된 검색 가능한 사이트는 '장경연구소' '부다피아' '관음선원' 등 3개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티벳·일본불교관련 사이트 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야후에서는 상좌부, 대승, 선불교, 불교단체 등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따라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불교단체'로 분류된 기본정보는 총 21개로 티벳불교 8개 일본불교 5개 중국불교 2개 선불교 1개 한국불교 1개 불교인간 4개로 구성돼 있다.

티벳·일본불교의 성향을 지닌 사이트는 수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티벳·일본·중국불교 관련 사이트 대부분이 미주를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포교활동으로 늘어난 현지인 불자들이 사이트를 연달아 개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9월초순에 영국의 브리

스스에서 중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사이트가 성업스님(대만)의 법제자인 존 크록(英)씨에 의해 개설된 것을 보더라도 인터넷 웹사이트는 각국 불교의 해외포교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유학중인 서정순씨는 "한국불교가 독일에서 베트남불교 보다는 더 일찍 정착했다. 그러나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베트남 불교를 믿는 독일인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이 베트남불교관련 사이트를 속속 개설하고 있다. 반면 한국불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종욱 기자)



◇지방화시대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한 대구 진각회관이 지난 17일 헌공봉사를 시행했다.

## 진각회관 17일 준공 대구불교 '열린마당'

### 대구BBS 입주... 교양대·복지관·무료예식장등 운영

대구 문화의 거리 대봉동에 지하2층 지상8층의 매머드 불교문화센터 진각회관이 준공됐다. 진각종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진각회관 7층 다목적홀에서 각 해충인 락해트리원장을 비롯하여 해초(태고종 총무원장) 일공(원공총무원장) 남경(총화종 총무원장) 대호(법화종총무원장) 법타(은해사 주지) 설조(불국사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각회관 헌공봉사를 시행했다.

이날 헌공봉사에서 락해 트리원장은 "지방화시대에 지역 불교 활성화라는 취지를 안고 진각회관 건립의 원력을 세웠다"며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에 한국불교 문화를 이끌어갈 복지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각종은 진각회관 헌공봉사를 축하하고 종교문화예술의 기틀을 다지는 진각50 음악제를 17일 오후 6시 대구시 민회관에서 개최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 북경 '한·중·일 불교학술교류회'서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주제발표



"한국과 중국의 불교교류는 양국이 각기 지니고 있는 신앙적 의례와 학문적 자료, 문화 예술 등을 실천적 방향에서 교류한다면 양국 불교와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지난 8~9일 이틀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불교회가 주최한 '제6회 한·중·일 불교학술교류대회'에서 '한·중 불교교류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불교가 국가간

과 백제의 현광(玄光)스님, 신라의 각역(覺越)스님 등은 당 시대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건너가 불학을 연구하는 등 수많은 승려들이 구법(求法)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 "한·중불교 나당시대 가장 흥성"

#### 역사·지리상 불가분 관계... '황금교류시대' 제의

의 교류로써 전래된 것은 고려 소수림왕 2년(372). 그러나 법산스님은 그보다 먼저 중국 동진의 고승 지존도림(支遁道林, 314~386)이 고구려 승 명명(明名)에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아 이미 고구려에 불교가 상당히 선행되고 승려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선시대 승유억불정책으로 중국과의 불교교류가 막힌 적도 있으나 한국불교는 중국에서 형성된 모든 종파를 다 받아들였다고 언급한 법산스님은 양국불교가 가장 흥성했던 나당(隋唐)시대를 상기시키며, 한중 양국은 불교교류를 통해 나당시대의 황금문화를 재현할 것을 제의했다. (우)

동국대 사학회는 동국대개교 90주년과 사학회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한중교류사상계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중국의 강남사회와 문화는 우리 한반도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강남의 절동지역은 하모도문화유적을 비롯 태도를 비롯한 대소사원 등 우리역사속에 남아있는 중국 문화의 본고장이다

### 동국대 '중국 절동문화와 한중교류' 학술회의

#### "조음동 관음전은 낙산 흥련암 모방"

#### "적산 법화원 신라인들 활동 중심지"

"중국 절동문화와 한중교류"라는 큰 주제로 열린 학술회에서 조영록교수(동국대 사학부)는 "중국 보타산 관음상지와 한국" 발표에서 "조음동 불국사관음전은 제2의 낙산 흥련암이라 할 만큼 낙산사와의 외상과, 그리고 흥련암 관음굴의 구도를 닮았다"며 "9세기 중엽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던 신라시대가 흥련암의 안건을 위해 낙산과 닮은 조음동을 선정 흥련암을 모방하여 관음전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

적했다. 이영자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천태조사 의종보문과 절동불교'에서 "고려에서 건너가 중국 천태교학의 커다란 흥망과 발전을 가져온 의종보문은 깨달음을 얻은 뒤 절동의 명주에 머물며 보문선원을 열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전법하다 988년 세수 62세로 입적"했다며 현재는 현지에서 그 형적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됐음을 애석해했다.

김문경교수(승신대 명예교수)는 "오늘날의 산동성 연해안과 회하 대운하 장강하구와 남중국 연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 신라인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장보고는 신라인사회의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조직화했으며 장보고선단의 중국거점지 적산포였고 이곳에 법화원이 있어 중심활동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학술발표회후 지난 7일 동국대가 항주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1200km 고대항로탐사사의 보고회와 탐사사진을 모은 사진전도 열렸다. (속)

### 방송가 소식



### 방송작가 세미나 40여명 참석

제13회 방송작가 초청 불교 세미나가 지난 16~17일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있었다. 불교방송 운영공개를 비롯 방송 TV 박연진, KBS 김오민, MBC 김종달씨 등 40여명의 방송작가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훈(해라시라 문화연구소장)과 진철승씨(불교문화교육연구소 연구실장)가 '사찰건축에 대하여' '불교와 민족문화'를 강의했다.

### 불교TV 범우회 창립

불교TV는 지난 9일 범우회회를 발족했다. 이로써 범우회회는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회장 김학선)의 회원사로 등록, 공중과 3사와 불교방송의 불자들과 함께 조직적인 불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범우회 회장에는 경영관리국 이호국장, 부회장은 권성재 작곡 총사상국장이 선임됐다.

### 수해군부대 성공전달

불교TV는 지난 15일 불교 TV 대표이사실에서 지난 수해때 피해를 입은 군부대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연천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개사단의 대표와 박상길 군불교진흥회 회장이 참석했다.

매년 봄·가을 불교계에는 학술전지가 풍성하다. 올해도 24일 동국대 개교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주제하에 10여건 이상의 학술회의가 예정돼 있다. 올 가을에 열릴 학술회의의 대부분은 예년과는 달리 '불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학 연구는 다분히 인물과 사상, 사건중심적의 역사적 고찰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혁과 세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에 와서는 불교의 미래와 사회적 역할에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많다.

### 목탁소리

한 명우 (추재2부 기자)

머칠전 동국대의 한 스님은 대의 불교학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람 몇 명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가 불교학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준비도 전혀

없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화를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공명불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불교학 연구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 파생된다. 인구가 당연한 주제

러나 우리 불교계는 말로는 대 사회 회향과 세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사회현상과 타종교에 대한 연구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올가을 열리는 학술대회들은 대체적으로 불교전체의 발전방향과 한국불교의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불교학 학술세미나가 지향해야 할 일단을 보여주는듯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얼마나 끊임없이 불교학 발전의 지향점으로 삼느냐다. 종단, 연구단체, 학자들의 인식전환과 분발을 촉구한다.

불교학의 세계화

### 천혜의 전원주택



- 경기도 양평군 지재면 금역 : 7,000만원
- 지목: 대지(2필지), 평수 : 234평
- 건평 : 26평(현재 화방) 기공모일터
-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정남향)
- 마당에 정자나무 2그루 잔디정원
- 채전도약 100평도 붙어 있음
- 주의경관 수려하고 옆에 계곡물이 있음

### 사찰부지



- 경기도 양평군 지재면, 금역 6,500만원
- 지목: 준농림(III) 평수 : 1032평
- 진입로 및 토목공사(평탄작업해 드림)
- 경관이 수려하여 참선 도량 및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 투자성도 매우 좋음,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 (카루나 영화 촬영장 150m 근접)

###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 대구여래한방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부처의세계

내가 만드는 행운의부적

운답 엮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 ▲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 ▲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 ▲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 ▲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 ▲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 ▲ 부자가 되는 비결부
- ▲ 귀인이거나 사명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 ▲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 ▲ 삼세초음 비결부
- ▲ 관리지 않는 법, 명, 필모를 잘 팔 리게 하는 비결부
- ▲ 차·재산을 피하는 법과 골대장

운답 엮음/신국문/328쪽/값 12,000원

침묵의 소리 홍영스님 지음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쳐놓는가 홍영스님 지음 7,000원

문의 : 02-444-3575, 5310 / 02-3436-1064 / 02-732-5381 / 02-732-6202

출전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장대한 병(30~50대 여성의 지방,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정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료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세계 유일의 보석 옥산가 백옥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100명중 92%의 신장질환(92%), 100명중 85%의 고혈압(85%), 100명중 80%의 당뇨병(80%)의 완화를 치료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편두통, 불면, 손발저림, 소화장애, 관상동맥 질환을 대상으로 운영연속체공을 적용 시키기 임상실험 결과 100명중 84%의 통증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2.17)

『옥산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랜딩 비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